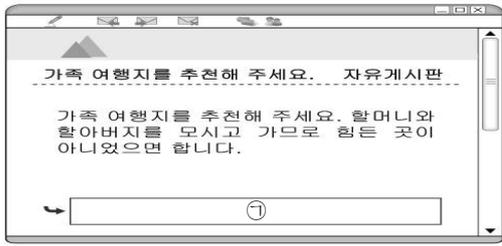






9. ㉠에 글을 쓰려고 한다.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건>

- 글쓴이의 요구를 수용할 것
- 대구를 사용할 것
- 직유를 활용할 것

- ① ○○삼립욕장을 추천합니다. 황토가 깔려 있는 산책로, 전나무가 우거진 푸른 숲이 일품입니다. 각종 편의시설을 갖춰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 ② △△민속촌을 추천합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특별한 느낌을 줄 것입니다. 때마침 펼쳐지는 전통 축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취향과도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해수욕장을 추천합니다.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설화가 있을 만큼 풍광이 빼어나서 각종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여름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멋진 해수욕장입니다.
- ④ □□녹차밭을 추천합니다. 호위병처럼 늘어선 삼나무, 양탄자처럼 펼쳐진 녹차밭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주차장과도 매우 가까워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도 편하실 것입니다.
- ⑤ ◇◇계곡을 추천합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아름답리 소나무,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물안개를 볼 수 있습니다. 계곡이 깊어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0. <보기>를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목 : 무서운 것이 무서워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은 무엇일까? ㉠ 간혹 그것은 사자나 코끼리처럼 몸집이 큰 동물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물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무서운 동물도 무서워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 그것이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이다.

예를 들면, 사자는 모기를 무서워하고, 코끼리는 거머리를 무서워한다. (○) 독침을 가지고 있는 전갈은 파리를 무서워하고, 하늘을 지배하는 때는 ㉢ 거미가 무섭다. 이것은 몸집이 크고 힘이 ㉣ 강한 것은 무서워하는 것이 있고, 몸집이 작고 힘이 약한 것이라도 무서운 것이 있다는 말이다.

- ① ㉠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아마도'로 바꿔야겠어.
- ② ㉡은 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③ ㉢은 앞뒤 문장의 인과 관계를 위해 '그래서'를 넣어야겠어.
- ④ ㉣은 호응 관계를 생각해 '거미를 무서워한다'로 써야겠어.
- ⑤ ㉤은 전후 문맥을 고려해 '강한 것이라도'로 고쳐야겠어.

11. <보기>의 밑줄 친 말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 그 문제를 해결하니 후련하여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다.

- ① 빛을 완전히 값으니 속이 아주 시원했다.
- ② 나는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바람을 썰었다.
- ③ 그는 공부는 물론이고 말주변도 시원치 않았다.
- ④ 민수는 성격이 시원해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 ⑤ 적당히 맛이 든 김치 국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다.

12. <보기1>을 참고하여, <보기2>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

○ 어간이 'ㅂ'으로 끝나는 용언에, 모음 어미 '-아/어'가 붙어 활용할 때, 어간의 'ㅂ'이

A. 바뀌는 경우가 있다.

㉠ 어간에 '오'가 있고 어간이 1음절인 경우  
→ '오'로 바뀐다.

㉡ 그 외의 경우는 → '우'로 바뀐다.

B.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보 기 2>

ㄱ. 그들은 옷을 뒤집어 입고 있었다.

ㄴ. 어머니를 도와 열심히 청소를 했다.

ㄷ. 가을에는 단풍이 교와 경치가 좋다.

ㄹ. 그의 성실한 자세가 미더워 보였다.

ㅁ. 그녀는 옷을 얇게 입어 추위 보인다.

- ① ㄱ은 모음 어미 '-어' 앞에서 어간이 바뀌지 않았어.
- ② ㄴ은 모음 어미 '-아' 앞에서 어간이 바뀌는 경우야.
- ③ ㄷ은 ㉠에 해당하므로, 'ㅂ'이 '오'로 바뀌는 경우야.
- ④ ㄹ은 ㉡에 해당하므로, 'ㅂ'이 '우'로 바뀐 게 당연해.
- ⑤ ㅁ은 ㉢에 해당하므로, 'ㅂ'이 '우'로 바뀐 것이 맞아.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다정하게 포개진 접시들.

윤나는 남비.

방마다 불이 켜지고

제자리에 놓인

포근한 의자.

안락 의자.

어머니가 계시는 집안에는

빛나는 유리창과

차옥차옥 쟁겨진 내의.

새하얀 베갯잇에

네일 크로우버.

아늑하고

그득했다.

- 박목월, 「가정」 -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은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엄매의 마음은 어찌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내 어렸을 적 고향에는 신비로운 산이 하나 있었다.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영산이었다.

영산은 낮에 보이지 않았다.

산허리까지 잠긴 짙은 안개와 그 위를 덮은 구름으로 하여 영산은 어렴풋이 그 있는 곳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다.

영산은 밤에도 잘 보이지 않았다.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 달빛 속에 또는 별빛 속에 거무스레 그 모습을 나타내는 수도 있지만 그 모양이 어찌하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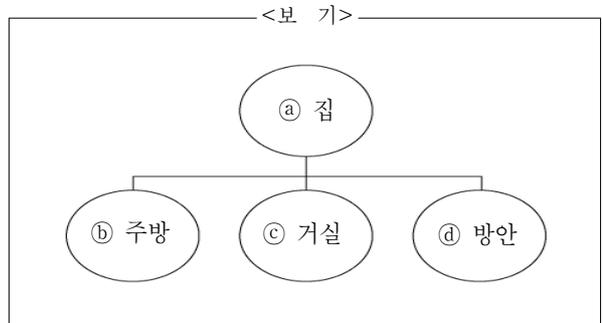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이 불현듯 보고 싶어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갔더니 이상하게도 영산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미 낯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런 산은 이곳에 없다고 한다.

- 김광규, 「영산(靈山)」 -

13. (가)~(다)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화자의 감정 변화를 시간의 흐름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다양한 색채어를 활용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과거의 상황 전개를 통하여 화자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 (나), (다)는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시적 대상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4. <보기>는 (가)에 나타난 시적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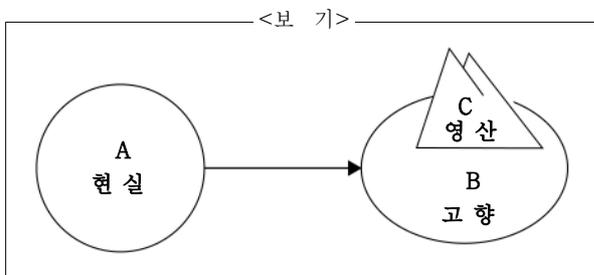


- ① ㉠ : '불'을 통해 따뜻한 기운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시선의 이동을 통해 집 안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 '접시'를 통해 정겨운 가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 '의자'를 통해 가정의 편안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내의'를 통해 집안의 내력을 알려 주고 있다.

15. (나), (다)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주 장터 생어물전'은 어머니의 고달픈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울엄매야 울엄매'라고 반복하여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를 통해 어머니의 강인한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 ④ '질은 안개'와 '구름'을 통해 대상의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영산'을 통해 영산이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B까지는 공간적 거리가 있다.
- ② A에서, 화자의 마음속에 C가 있었다.
- ③ B의 사람들은 C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
- ④ B에서, 화자는 C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 ⑤ B에서, C는 화자에게 낯익은 곳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들은 사막보다 푸른 초원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간이 왜 특정한 환경이나 공간적 배치를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지 ㉠ 일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조경 연구자 제이 애플턴의 '조망과 피신'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남들에게 들리지 않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곳을 선호하게끔 진화했다. 장애물에 가리지 않는 열린 시야는 물이나 음식물 같은 자원을 찾거나 포식자나 악당이 다가오는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는 데 유리하다. 눈이 달려 있지 않은 머리 위나 등 뒤를 가려 주는 피난처는 나를 포식자나 악당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산등성이에 난 동굴, 저 푸른 초원 위의 그림 같은 집, 동화 속 공주가 사는 성채,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된 2층 카페 등은 모두 조망과 피신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풍수지리설에서 배산임수(背山臨水), 즉 뒤로 산이나 언덕을 등지고 앞에 강이나 개울을 바라보는 집을 높게 쳐주는 것에도 심오한 진화적 근거가 깔려 있는 셈이다.

'조망과 피신' 이론은 그저 재미로 흘러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제공하는 과학 이론이다. 첫째, 사람들은 어떤 공간의 한복판보다는 언저리를 선호할 것이다. 언저리에서 그 공간 전체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나무 그늘이나 지붕, 차양, 파라솔 아래처럼 머리 위를 가려 주는 곳을 측면이나 후면만 가려 주는 곳보다 선호할 것이다. 셋째, 온몸을 사방으로 드러내는 곳보다 측면이나 후면을 가려 주는 곳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 예측들을 직접 검증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한적한 별다방에 가서 줄지어 들어오는 손님들이 과연 어떤 테이블부터 채우는지 살펴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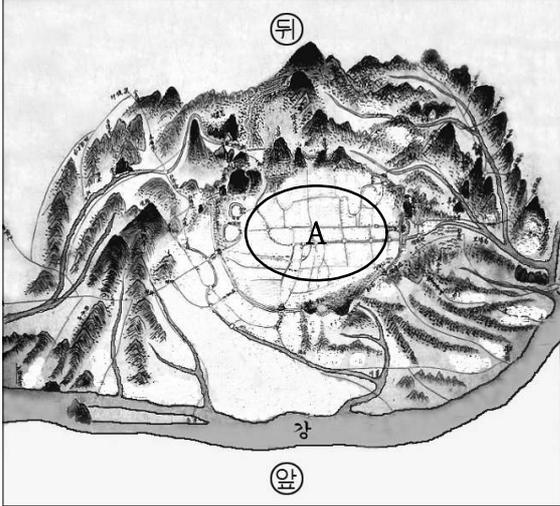
20세기의 위대한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들은 진화 미학으로 잘 설명된다. 라이트가 설계한 집은 정문에서 낮은 천장, 불박이 벽난로, 널찍한 통유리창이 어우러지면서 바깥 풍경에 대한 조망과 아늑한 보금자리를 동시에 선사해 준다. 특히 천장의 높이를 제각각 다르게 하고 지붕 바로 아래에 주요한 생활공간을 몰아넣음으로써 마치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에 사는 듯한 느낌을 준다. 라이트는 그의 대표작인 「낙수장(落水莊, Falling Waters)」을 계곡의 폭포 바로 위에 세움으로써 피신처에서 느끼는 안락한 기분을 한층 강화시켰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란 자연 그 자체에 깃든 외부적 실재가 아니다. 잡식성 영장류인 인간이 오랜 세월 진화하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특정한 환경을 잘 찾아가게끔 그 환경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일 뿐이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의 일상적인 행동에도 진화적 근거가 깔려 있다.
- ② 라이트의 대표작인 「낙수장」은 진화 미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③ 사람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조망보다 안락함을 우선한다.
- ④ '조망과 피신' 이론은 몰랐던 사실에 대해 예측을 제공한다.
- ⑤ 사람들은 지붕이 있는 곳을 측면만 가려주는 곳보다 좋아한다.

18 다음은 어떤 지역의 지도이다. 위 글을 참고하여 A 지역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쪽의 위협을 빨리 알 수 있어 살기에 적당하겠군.
- ② 옆쪽은 산들이 가려주어 보호의 기능을 제공하겠군.
- ③ 앞쪽은 강으로 시야가 열려 있어 자원을 찾기 쉽겠군.
- ④ 뒤쪽의 산들이 뒤를 막아주어 피난처로 안성맞춤이군.
- ⑤ 한복판은 사방을 둘러볼 수 있어 주거지로 가장 좋아하겠군.

19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적 배치를 바꿀 수 있는 곳을 아름답다고 느낀다.
- ② 종족을 보존하는 데 적합한 곳을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 ③ 자연 자체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곳을 아름답다고 인식한다.
- ④ 주변의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을 아름답다고 파악한다.
- ⑤ 지형이 단순하지 않고 적당히 복잡한 곳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가치는 반드시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반면에, 사실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과 가치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도 사실과 가치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로, 사실에 강조점을 두는 입장에서는 가치를 사실로써 설명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를 하는 철학자들의 의도는 가치 판단에 속하는 윤리적인 명제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정당화해 보려는 것이다. 즉, 윤리의 본질, 혹은 윤리에 대한 학(學)의 성립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치를 사실에 환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입장의 철학자들은 ‘선하다’라는 윤리적인 가치 개념을 ‘쾌락을 증진시킨다’라는 사실로 설명하려고 한 다든가, ‘옳다’라는 도덕적 개념을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등 자연적인 사실에 의해 정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실로부터 가치나 당위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입장을 보통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자연주의는 주로 근대에 들어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가치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 입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떤 철학자들은 규범이나 도덕의 가치들은 결코 사실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직관론자로 불리는 이들은, ‘선하다’라는 성질은 직관에 ㉠ 의해서만 파악되는 것이지, ‘행복하다’든지 ‘바라고 있다’라는 경험적 사실에 의해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가치를 사실에 환원하는 것을 ‘자연주의적 오류’라 비판한다.

둘째로, 가치를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반대로 사실이 항상 엄격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많은 경우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전혀 없는 별거벗은 사실이 아니라 이미 어떤 가치의 옷을 입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즉, 많은 경우 사실은 가치의 개입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제의 지적인 활동에서는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이런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사실의 구조를 인식하며 윤리를 통해서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별개의 영역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 인간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할 때에는 이 두 영역이 서로 맞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20 위 글의 핵심 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가치는 정의할 수 있는가?
- ② 사실과 가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 ③ 사실과 가치는 분명하게 구분되는가?
- ④ 사실과 가치는 과학적으로 검증되는가?
- ⑤ 사실과 가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복잡한 지하철도에 할머니 한 분이 타시자 민호는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했다.

ㄱ. 민호는 ㉠ 자리를 양보했다. .... 사실 판단  
 ㄴ. 민호는 ㉡ 착하다. .... 가치 판단

- ① ㄱ과 ㄴ은 일반적 견해로 판단한 것이다.
- ② 자연주의의 견해로 보면 ㉡는 ㉠로 환원될 수 있다.
- ③ 직관론자의 견해로 보면 ㉡는 ㉠로 환원될 수 없다.
- ④ 사실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로써 ㉠를 설명하려 한다.
- ⑤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자들은 ㉠에 ㉡의 개입을 전제한다.

22. ㉠의 '만'과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아무래도 나는 너만 못한 것 같다.
- ② 이것들 중에서 하나만 가질 수 있다.
- ③ 이 창문은 두드리기만 하면 열리게 되어 있다.
- ④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 ⑤ 제가 자꾸만 이러한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23.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과 가치는 도덕과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 ② 사실과 가치는 결합되어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③ 사실과 가치의 판단은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 ④ 사실과 가치는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 ⑤ 사실과 가치는 직관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혈룡이는 배고파 기진맥진하였는데 ㉠ 연광정\*의 그 풍성한 음식을 보고 반가웠지만 아무리 반가워도 화중지병(畫中之餅)\*이라 먹을 수가 없었다. 눈을 돌려 경치를 살펴보니 십리청강에 오리들은 물결을 따라 등실등실 높이 떠서 쌍쌍이 놀고 있고 백리평사(百里平沙)에 백구들은 쌍을 지어 놀고 있었다. 혈룡은,

“네 노래 청량함도 처량하다.”

하면서 구경을 다한 후에 틈을 타서 감사가 노는 앞으로 가까이 들어가서 불러 말했다.

“평양감사 김진희야, 이혈룡을 모르느냐?”

두세 번 외치는 소리에 감사가 듣고 한참을 보다가 호장을 불러 호통하니, 호장이며 수령들이 겁을 내어 혈룡에게 일시에 달려들어 뺨을 치고 등을 밀며, 상투를 잡아 끌고 가서 혈룡을 감사 앞에 꿇어 앉혔다. 그러자 김 감사가 혈룡에게 노발대발,

“너 이놈! 들어라. 웬 미친 놈이 와서 감히 내 이름을 욕되게 부르느냐?”

하였다. 이혈룡이 어이가 없어서,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지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서 노자도 떨어지고 기갈을 견디지 못하여 문진길 식하고 다니다가 오늘이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괘시한단 말이나? 오랜 친구도 쓸 데 없고 결의형제(結義兄弟)도 쓸 데 없구나. 내가 네 처지라면 이같이는 괘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 백이라도 준다면 모친과 처자를 먹여 살리겠다.”

하면서 대성통곡하였다. 이혈룡은 다시 울먹이는 말로,

“이 몸쓸 김진희야, 내가 지금 ㉡ 폰전의 노자가 없으니 멀고 먼 서울 길을 어찌 돌아가랴.”

하니, 김 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 놈 봤나.”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엄명하였다.

“이놈을 배에 싣고 가서 ㉢ 강물 한 가운데 던져라.”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물러나와 이혈룡을 묶어서 배에 실을 때에 연회장에 있던 옥단춘이 넋지시 보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감사에게 거짓말하여 고하기를,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 감사가,

“그러면 물러가서 치료하라.”

하였다. 옥단춘이 물러나와서 사공을 급히 불렀다.

“저기 가는 저 ㉣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하니 사공들이 머무르거늘 옥단춘이 하는 말이,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줄 것이니 이 양반을 죽이지 말고 죽인 듯이 ㉤ 모래를 덮어서 숨겨 두고 오시오.”

하였다. 옥단춘의 부탁을 받은 사공들이,

“아무리 사또 영이 지중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하고 사공들이 이혈룡을 배에 싣고 만경창과 깊은 물에 등기등실 떠나갔다.

# 언어 영역

**[중간 부분 줄거리]**

옥단춘의 도움으로 살아난 이혈룡은 옥단춘과 가연을 맺고, 후일을 기약하며 평양을 떠나 서울로 돌아온다. 마침내 이혈룡은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평안도 암행어사 제수를 받고 거저 복색으로 이혈룡만을 기다리는 옥단춘 집으로 찾아간다.

자개함농 반닫이를 열고 유려한 새 의관을 집어 내서 삼백들 통영갓과 외울뜨기 망건이며, 쥐꼬리 당줄에, 공단싸개 호박풍 잠과 관자까지 모두 달아 씌우고, 봄철 새 의관으로 깨끗이 갈아 입히고, 서방님 얼굴을 다시 보니 어찌 반갑지 않으랴.

“입아 입아 낭군님아, 이처럼 좋은 얼굴, 어쩌면 그 지경이 되어 왔소?”

이렇게 옥단춘이 말하니, 이혈룡은,

“서울 본집에 올라가 보니, 수십여 명의 권술<sup>\*</sup>이 무슨 까닭인지 가세도 풍부하고 노비와 전답이 흡족하게 지내므로 그 연고를 물었더니, 그대가 재물을 많이 보내어 호의호식으로 지내는 것을 비로소 짐작하고 그대의 은혜가 백골난망인 것을 알았네. 가족들도 모두 자네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잘 지냈지만, 그전에 곤궁할 때에 수천 냥 빚을 얻어 썼더니, 그 빚쟁이들이 줄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 들어서 성화같이 빚 독촉을 하지 않겠나. 양반의 체면으로 갚지 않을 수 없어서 가정 기물을 모조리 팔아도 오히려 부족한지라. 그리하여 과거도 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그대를 볼 날이 없네. 이런 민망한 소리 하기 싫어서 오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러면 배은망덕 될 듯하여 오기는 하였네. 그러나 안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도중의 주막에서 자다가 도적에게 노자와 의복을 모두 빼앗기고 거지 꼴이 되어서 그대 보기가 무안하여 그리 했었네.”

하고 대답하였다. 옥단춘은 말을 받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리까. 그런 근심 걱정일랑 아예 말으세요. 과거를 못 보신 것은 역시 운 [A] 수입니다. 다음에 또 보실 수가 있으니 그것도 낙망하실 것 없나이다. 내 집에 서방님 드릴 옷이 없겠어요? 밥이 없겠어요? 그만 일에 장부가 근심하면 큰일을 어찌 하시리까.”

하고 위로하니 연연한 정이 측량할 수 없었다.

- 작자 미상, 「옥단춘전(玉丹春傳)」 -

\* 연광정 : 평양 대동강 변에 있는 정자.  
\* 화중지병(畫中之餅) : 그림 속의 떡. 바라만 보았지 소용이 닿지 않음.  
\* 권술 :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 ② 공간 이동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사건의 진행 과정상 초월적 세계가 개입하고 있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물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다.
- ② ㉡ : 집으로 되돌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다.
- ③ ㉢ : 인물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곳이다.
- ④ ㉣ : 인물을 살려 주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 ⑤ ㉤ : 인물의 죽음을 가장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다.

26. ‘옥단춘’과 <보기>의 ‘만덕’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만덕은 재산을 늘리는 데 재능이 뛰어나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들이<sup>\*</sup>를 했다. 그러한 지 몇 십 년 만에 제법 여성 부호로 이름이 드높았다.

우리 임금(정조) 십구 년 을묘년(乙卯年)에 탐라에서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 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짐대<sup>\*\*</sup>가 복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희사(喜捨)하여 쌀을 물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취하여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실어 보냈다. 그리하여 부황(浮黃)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가 뜰에 모여들었는데 마치 구름과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緩急)을 조절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칭송하여, “우리들을 살려 준 이는 만덕이여”라고 하였다.

- 이옥, 「만덕전」 -

\* 내들이 : 내어 팔고 사들이고 하는 일.  
\* 짐대 : 돛대.

- ① ‘옥단춘’과 ‘만덕’은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 ② ‘옥단춘’과 ‘만덕’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여성이었다.
- ③ ‘옥단춘’과 ‘만덕’은 기지로써 신분의 제약을 벗어난 인물이었다.
- ④ ‘옥단춘’은 한 사람과의 신의를 지켰고, ‘만덕’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 ⑤ ‘옥단춘’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만덕’은 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27. [A]를 재구성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인생사(人生事)는 [㉠]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장부로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셔야 큰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① 새옹지마(塞翁之馬)                      ② 고립무원(孤立無援)
- ③ 점입가경(漸入佳境)                    ④ 일장춘몽(一場春夢)
- ⑤ 금상첨화(錦上添花)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러분은 “이미 었질러진 물이야. 후회하지 마.”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깊은 진실이 담겨 있다.

(나) 경제학자들은 편익을 **㉠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편익은 비용의 대가로 얻는 만족, 이익을 뜻한다. 기회비용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을 얻기 위해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기회비용은 ‘매물비용’이 된다. 매물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다. **㉡ 한번** 지불하고 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 놓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미 매물된 비용들은 감안해서는 안 된다.

(다) 매물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해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기업들의 의사결정 **㉣** 질차를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대부분의 미국 내 대형 항공사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어떤 해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 항공이 각각 4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적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은 계속 표를 팔고 승객들을 실어 날랐다. 이러한 결정은 다소 **㉥ 의아하게** 느껴질 것이다. 왜 항공사 경영진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라) 항공사들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항공사들 비용의 일부가 매물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샀고 그것을 다시 팔 수 없다면 그 비행기에 대한 비용은 이미 매물된 것이다. 운항의 기회비용은 연료비, 조종사와 승무원의 임금 정도가 될 것이다. 운항을 선택함으로써 써야 하는 비용보다 기업이 운항을 통해 벌어들이는 총수입이 크다면 항공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마) 매물비용이 의사결정과 무관함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 것에서 10,000원의 만족감, 즉 편익을 얻는다고 하자. 영화표를 7,000원에 샀는데 실수로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표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다시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정답은 다시 표를 사는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의 편익(10,000원)은 여전히 기회비용(표를 다시 사는 비용 7,000원)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이미 잃어버린 표의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미 었질러진 물이니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것이다.

2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속담을 인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비교하여 공통 속성을 찾고 있다.
- ③ (다)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④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알려주어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마)는 일상의 사례를 제시하여 이해를 깊게 하고 있다.

29. (다)~(라)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총수입이 매물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 ② 총수입이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 ③ 매물비용이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 ④ 매물비용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 ⑤ 기회비용이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30. (마)를 이해한 뒤, <보기>에 나오는 김씨의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20,000원 ————— ㉠

10,000원 ————— ㉡

0원 ————— ㉢

-10,000원 ————— ㉣

김씨는 20,000원을 지불하고 뷔페에 갔다. 그런데 얼마 먹지 않아 배가 충분히(만족도 100%) 불렀다. 먹은 음식 가격을 계산해 보니 10,000원어치였다. 지불한 돈이 아까워진 김씨는 고민에 빠졌다. ‘돈을 낸 만큼은 먹어야 하는데…….’

- ① 지불한 매물비용은 ㉠이다.
- ② 얻으려는 편익은 ㉠ 이상이다.
- ③ 실제 얻고 있는 편익은 ㉡이다.
- ④ 더 먹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 이상이다.
- ⑤ 더 먹어서 배탈이 난다면 편익이 ㉣가 될 수도 있다.

31. ㉠~㉣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1점]

- ① ㉠ : 획득하기
- ② ㉡ : 일단
- ③ ㉢ : 배제하고
- ④ ㉣ : 과정을
- ⑤ ㉥ : 이상하게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콧 서방이 서 영감을 애걸의 상대로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콧 서방의 매잡이 일에 제일 간섭이 심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벌써 콧 서방을 절반이나 낮이나 간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데 비해 서 영감은 그래도 그러는 콧 서방을 한사코 나무라 들기라도 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콧 서방은 오히려 그 영감에게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만한 틈을 본 것이다. 그 날 밤으로 콧 서방은 서 영감을 찾아갔다. 영감은 펄쩍 뛰었다. 막연히나마 이미 짐작을 하고 간 일이었다. 콧 서방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매가 떠나 버린 것을 안 서 영감은, 그것 참 매란 놈이 콧 서방 사람될 기회를 주느라고 그리 된 것이라며 다행스러워하기부터 시작했다.

“이제 딱 마음을 잡고 탄 일을 손대 보게. 우리 집에서 할 일이 많으니. 그간 자넨 매라는 놈에게 미쳐 있었지. 한테 그 매 귀신이 제풀에 떠나주질 않았나.”

㉠ “모래 장터로 번개쇠의 기별이 올 텐데요.”

콧 서방은 고집스럽게 말했다.

“글쎄, 내 생각 같아선 요즘 어느 낮나간 녀석이 그런 걸 찾아주겠다고 건드려건드려 장터로 매를 가지고 나올 턱도 없지만, 또 오면 어때. 모른 채해 버리든지 자네 병 여윈 셈치구 그 사람더러 아주 가져다 매를 모시라지.”

“하지만 그런 짓을…….”

“하여튼 나는 매 값을 낼 수 없어. 그런 줄 알게. 그리고 절대루 장날 기별을 보내올 놈도 없어. 만약 그런 놈이 있다면 진짜 후리배지.”

㉡ 콧 서방은 물러 나왔다.

㉢ “매 소리를 하겠거든 다시 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게. 인간이 불쌍해서 그쯤 알아듣게 살 궁리를 해보라고 했으면 귀가 좀 뚫릴 법도 한데 원 사람이라군…….”

그런 소리를 뒤에 남기고 버버리네 아랫방으로 돌아온 콧 서방은 밥도 굶고 생각에만 잠겨 있었다. 밤이 늦어서야 버버리 소년이 부엌을 뒤져다 준 식은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조금 넘기고 나서, 콧 서방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 - 에이 번개쇠놈, 아무리 생각이 없는 날짐승이기로서니…….

그러나 다음 날 오후 늦게 콧 서방은 또 다시 서 영감을 찾아갔다. 장날을 하루 앞두고 먼저 마을로 번개쇠의 기별이 들어왔던 것이다. ㉤ 삼십 리 바깥 천관리(天冠里) 마을로 대낮에 매가 들어왔다고 천관리를 지나 들어온 마을 사람이 기별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매주는 내일 장으로 매를 가지러 나오라더라는 것이었다.

“큰 병일세 그려. 그래 자네 요즘 매를 부려서 썩을 한 마리나 잡은 일이 있나, 마을에서 물이를 나서 주나. 대관절 그건 찾아다 뭘 하겠다는 건가, 이 갑갑한 사람아.”

영감은 이제 화를 내지도 못하고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듯 콧 서방을 건너다 보았다.

“사냥을 못 하더라도, 기별이 왔는데 모른 채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 자네가 지금 도리를 찾을 때가.”

“…….”

콧 서방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영감의 말에 승복을 하고 있는 증거는 아니었다. 오히려 바위처럼 버티고 앉아 있는 모양이 서 영감이 무슨 말을 하든 기어코 매 값을

만은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다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내 매 값 몇 푼이 아까워서가 아니야. 매를 찾아오면 또 자네 고락서니가 못 보겠다는 말야.”

“저도 사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사냥은 되지도 않구요.”

“그럼 자넨 지금 정말로 그 매주의 도리라는 것 때문에 이러는 것인가?”

서 영감의 목소리가 갑자기 은근해졌다.

“하여튼 번개쇠를 찾아야겠어요.”

“그럼 약속해 주겠나?”

영감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꾸 목소리가 낮아졌다. 콧 서방은 영문을 몰라 처음으로 영감을 정시했다.

㉥ “매를 찾지만 하고 사냥 따윈 다시 나서지 않는다고.”

“…….”

콧 서방은 또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매는 찾아오되 매병은 가져오지 말라는 말일세. 실상은 나도 전혀 자네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 왜 나도 전에는 자네들을 부리지 않았나.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미쳤다고 뭐 얻어먹은 것 없이 자네 하는 일을 못 마땅해 하겠나. 세상이 그래서 안 되겠기에, 더구나 자넨 선량한 줄 내가 아는 터라 좀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라고 이러는 거지. 나도 실상 어떤 때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모르게 될 때가 많기는 하지. 하지만 어쨌든 자네가 지금 이런 곤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매라는 놈 때문이 아닌가 말일세.”

결국 그 날 영감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다하고나서 쌀 한 말 값을 내놓았다. 그 돈으로 매를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다시 사냥을 나서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라고 몇 번씩이나 다짐을 했다. 그러나 콧 서방은 돈을 움켜쥐고 나오면서 끝내 거기 대한 약속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시류를 좇아서 사는 사람들은 그 시류에 맞춰 생활을 잘 요리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그 시류에 민감하고 영리하게 적응하는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스스로 만족한다- 콧 서방은 영감의 집을 나오면서 어렵풋이나마 그 비슷한 생각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콧 서방은 실상 그 이전부터 벌써 그것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영감이 그렇게 콧 서방을 걱정해 주고 충고를 해 주는데도 콧 서방이 한 번도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 본 일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정준, 「매잡이」-

32.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듯 서술하여 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논평을 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배경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 변하는 모습을 제시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33. ㉔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은?

- ① 번개쇠의 행방을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한다.
- ② 번개쇠로 인해 생긴 손실을 아까워하고 있다.
- ③ 번개쇠를 돌려받지 못한 냉정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번개쇠를 지금까지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 ⑤ 번개쇠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까워 하고 있다.

34.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할 때, ㉑~㉔에 대한 제작 회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광 서방이 말할 때 고집스러운 표정이 드러나도록 클로즈업하게 한다.
- ② ㉒ : 광 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설정하게 한다.
- ③ ㉓ : 서 영감은 광 서방이 돌아서 가는 모습 뒤에서 말하도록 한다.
- ④ ㉔ : 광 서방의 번개쇠가 대낮에 천관리로 날아드는 장면을 오버랩하게 한다.
- ⑤ ㉔ : 서 영감의 단호한 태도가 드러나도록 무거운 음악을 사용하게 한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매잡이」는 요즘 쉽게 볼 수 없는 매 부리는 사람을 통해 인물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또 이 작품에 나타난 장인(匠人)들은 물질적인 가치의 지배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죽을 때까지 고수한다. 하지만 이들의 직업은 오늘날의 막강한 산업화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현대 산업 사회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와 같이 상처받고 사라져 가는 전통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장인을 그려냈다고 할 수 있다.

- ① 광 서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웃음으로써 현실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 ② 광 서방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서 영감에게 도움을 받지만 자기의 가치관을 고수한다.
- ③ 광 서방을 통해 산업화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광 서방이 지키고자 했던 매잡이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직업임을 알 수 있다.
- ⑤ 광 서방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도 옛것을 지키려는 장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엘리베이터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가 있다. 고정 도르래는 우물물을 끄는 것처럼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사용한다. 반면 움직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작은 힘으로 큰 무게를 움직일 때 사용한다. 이 두 가지 중 엘리베이터는 고정 도르래를 이용한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그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도르래는 수직 통로의 맨 위에 고정되어 있다. 이 도르래는 전동기의 출력 장치와 연결되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전달한다. 그 옆에는 보조 도르래가 있다. 엘리베이터의 힘은 끈을 통해 작용하는데 한쪽 끈에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박스가, 다른 쪽 끈에는 평형추가 달려 있다. 엘리베이터 박스와 평형추는 전동기의 힘으로 아래, 혹은 위로 움직인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끈의 각 부분에는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게 되며, 이 힘을 장력이라 부른다. 장력은 서로 잡아당길 때 생기는 힘으로, 밀거나 누르는 힘인 압축력과 다르다. 또한 장력의 두 힘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힘들이다. 줄다리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줄다리의 경우 한 쪽에서 가만히 있으면 줄은 일반적으로 다른 쪽으로 끌려갈 것이다. 엘리베이터 박스와 평형추 사이의 힘도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 박스만 있고 평형추가 없다면 다른 쪽은 엘리베이터 박스 쪽으로 끌려가 버릴 것이다. 이런 상태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한다면 엘리베이터 박스의 무게를 전동기의 힘으로만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쪽에 엘리베이터 박스와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추가 있다면 그 무게만큼 전동기가 부담해야 할 힘은 분산될 것이다.

도르래의 원리를 엘리베이터에 이용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추락 사고다. 1861년 오티스라는 발명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역회전 방지 장치’로 엘리베이터 특허를 받았고, 고층 건물 시대의 서막을 화려하게 열었다. 보통 ‘엘리베이터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이 장치 덕분에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움직일 경우에는 도르래가 양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추락 상황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는 도르래의 움직임을 멈춰 낙하를 방지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안전벨트를 서서히 잡아당기면 벨트가 자연스럽게 풀리지만, 힘을 주어 확 잡아당기면 벨트가 당겨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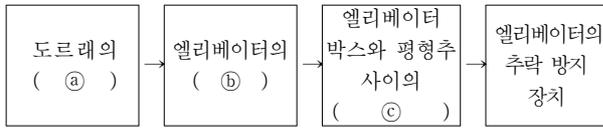
36.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ㄴ. 친숙한 예를 들어 대상의 작동원리를 밝히고 있다.  
 ㄷ.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ㄹ.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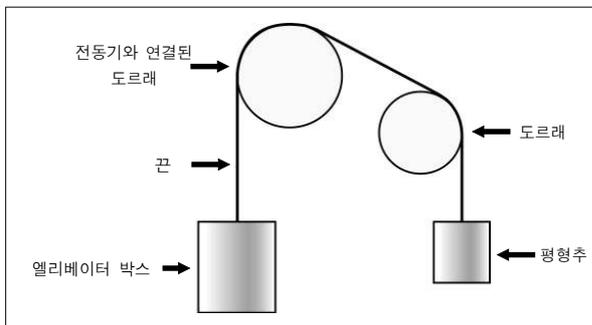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7. 위 글의 내용을 흐름에 따라 정리할 때, ㉠~㉢에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 용도 | 형태 | 압축력 |
| ② | 구조 | 원리 | 중력  |
| ③ | 종류 | 구조 | 장력  |
| ④ | 종류 | 역사 | 장력  |
| ⑤ | 용도 | 구조 | 압축력 |

38. 다음은 위 글의 엘리베이터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동기와 연결된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이다.
- ② 엘리베이터 박스가 내려가면 평형추는 올라간다.
- ③ 평형추는 엘리베이터 박스를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 ④ 평형추보다 엘리베이터 박스가 가벼워야 추락 방지가 쉽다.
- ⑤ 평형추는 전동기가 부담해야 할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화자를 중심으로 하여 화자, 청자, 시간 및 장소 등을 언어 분석에서 중요 요소로 다루는 언어 연구를 화용론이라 한다. 일반적인 이론언어학과는 달리 화용론에서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상황을 중시하여 언어를 연구한다. 화용론이 언어 연구와 의사소통에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 (1) ㄱ.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ㄴ. 영이가 알아서 그 일을 해라.

(1)의 문장은 이론문법에서는 올바른 문장이지만 화자나 청자, 상황을 ㉠ 고려하면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사회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을 경우에 (1)은 ㉠ 올바른 문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맞는 문장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사용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문장이 되기도 한다. 의사소통은 실제 상황에서 구체적인 화자와 청자 사이에 이루어지므로, 문법에 맞는 문장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문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 (2) ㄱ. 나는 졸면이야.  
 ㄴ. A : ㉠ 나는 칼국수야.  
 B : 내가 칼국수지. ㉡ 너는 졸면 아냐?  
 A : 너 미쳤니? 난 칼국수야.

(2ㄱ)의 문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는 사용 가능한 표현이다. (2ㄴ)의 대화를 보면 얼마든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주어가 '그 주어의 경우'나 '그 주어가 선택한 것' 등을 나타내는 화용적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상황에 의하여 '나는'이란 말에는 '내가 주문한 것은'이란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 이론문법에서 보면 이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아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이렇게 특별한 화용적 상황에서는 사용 가능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 (3) 영이가 같가?

(3)의 '영이'는 화용적 상황에 따라 2인칭을 의미하기도 하고 3인칭을 의미하기도 한다. ㉠ '영이'가 청자인 경우에는 2인칭이 되지만, ㉡ 제3자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3인칭이 된다. 지칭어나 호칭어의 인칭은 이렇게 화용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국어에서는 대명사보다 지칭어나 호칭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아주버님', '도련님' 같은 말이 의미하는 인칭은 장면에 의해 달라지고 장면을 모르면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화자나 청자, 상황을 고려하여야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올바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화용론은 실질적인 언어 사용 상황을 중시한다.
- ② 화용적 상황에 따라 비논리적 문장도 사용할 수 있다.
- ③ 국어에는 대명사보다 지칭어나 호칭어가 많이 사용된다.
- ④ 이론문법에서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문장이 있다.
- ⑤ 화용적 상황을 고려해야 말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다'로 바꿀 수 있다.
- ② ㉡ :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내가 주문한 것은 칼국수야'의 뜻으로 쓰였다.
- ③ ㉢ : 음식을 주문하는 상황에서 '너는 쫄면을 주문한 것 아니냐'의 뜻으로 쓰였다.
- ④ ㉣ : '영이'를 '너'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다.
- ⑤ ㉤ : '영이'를 '그 여자'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다.

41.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화자, 청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칭이 혼동되지는 않는다.
- ③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모호하여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 ④ 철수의 두 번째 말은 이론문법에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 ⑤ 어머니의 두 번째 말은 비문법적이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4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 ② 개인차를 생각하여 평가해야 한다.
- ③ 어린 시절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 ④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 ⑤ 요즘은 종종 고향 마을을 생각한다.

[43~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풍이 문득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가?  
 황혼에 달이 좇아 베갯말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 데 보내랴.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걸어 놓고 공작을 둘러 두니,  
 가뜩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었던가?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어  
 금자로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었네.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고 험할시고.  
 천리 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

- \* 나위 : 비단으로 만든 포장.
- \* 수막 : 수 놓은 장막.
- \* 부용 : 부용장(芙蓉帳). 연꽃 무늬 비단으로 만든 방장.
- \* 제도 : 마련된 법도. 여기서는 옷을 만드는 격식을 가리킴.
- \* 백옥함 : 흰 옥으로 만든 함.

(나) 하사(夏詞) 1  
 곳은 비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 떠라 배 떠라  
 ㉢ 뉘대를 둘러메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할러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 안개 강 첩첩 봉우리는 뉘라서 그려낸고

하사(夏詞) 10  
 ㉤ 조막집\* 바라보니 백운(白雲)이 둘러 있다  
 배 붙여라 배 붙여라  
 ㉣ 부들 부채 가로 쥐고 돌길로 올라가자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어부가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조막집 : 자신의 작은 집을 이룸.

(다) 하선동력(夏扇冬曆)이란 말이 있다. 여름엔 부채를 선사하고 겨울엔 다음해 책력을 선사하는 것이 뛰어난 생색이 났던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같이 에어컨으로 냉방을 차리거나 선풍기로 땀을 긋는 일이 없으니 이들이 거의 생활의 필수품이었을 것이요, 책력 또한 절기를 따라 1년 행사의 계획을 짜던 때고 보니 그럴싸한 미풍양속임에 틀림없다. 조선 말엽까지만 해도 공조(工曹)에서 부채를 만들어 재상과 궁정 관리를 비롯하여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나눠주던 단

오선(端午扇)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영·호남의 방백과 절도사 지방장관도 그 지방 특산의 부채를 궁중에 진상했다고 한다.

중국 동진조(東晉朝)의 명신인 사안은 왕회지와 교유하여 유명하거나 당시 뛰어난 풍류객으로도 또한 이름이 있다. 하루는 동양 태수로 부임한 친구 원평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부채 한 자루를 꺼내 주면서

“이걸 기념으로 받아 주게.”

했더니, 원평은 그 부채를 받아들자

“이 ㉞ 부채로 어진 바람을 일으켜 백성들의 생활을 돌봐 주겠네. 그것이 나의 최대의 목표니까…….”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부채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신 구조가 이쯤 되고 보면, 탐관오리 때문에 골치 앓을 백성은 없으리라. 탐관오리가 득실 거리는 풍토에서는 재음미해 볼 만한 이야기다.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저(韓山細紵)\*로 조촐히 차린 여인이 옥같이 희고 고른 치열을 태극선으로 살짝 가리고 이야길 주고받는 모습도 우아하려니와, 구절오십시(九節五十矢)의 합죽선을 가꿈 폼다 접는 선비의 풍채도 또한 이에 못지 않은 풍정이리라.

그 태극선이나 합죽선이 전주산이고 보면 더 이를 데 없으려니와, 선주\*에는 비취와 호박을 물리면 더 좋을 것이요, 옥각(玉角)에 십장생을 조각했다면 더할 나위 없는 운치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그 합죽선에 열두 가지 빛깔을 낸다는 묵화로 산수도를 넣었다면 깊은 산골짜기의 물소리와 더불어 숲속에 이는 청풍을 동반하기 마련일 것이니, 모터로 바람을 일으켜 살갓을 스쳐가는 선풍기의 바람에 비할 바 아니리라.

부채는 살갓을 스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시원스레 씻는 바람이고 보니, 어찌 속된 에어컨이나 선풍기에 마음을 맡길 수야 있으랴?

- 신석정, 「뗏」 -

\* 한산 세저 : 한산에서 생산되는 울이 가늘고 고운 모시.  
\* 선주 : 부채고리에 매어 다는 장식품.

43.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② (나)에는 화자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나)의 화자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④ (나)와 (다)의 화자는 자연에 동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과거의 삶에 마음이 끌리고 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연물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다.
- ② ㉡ : 대상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 : 이상적인 삶의 공간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미인곡」은 작가가 선조 때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전라도 창평에 있을 때,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별한 임을 연모하는 여인의 심정에 빚대어 읊은 가사이다.

- ① ‘수막이 비어 있다’는 창평에서 홀로 지내는 외로움을 표출한 것이다.
- ② ‘임의 옷 지어내니’는 임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수품은 물론이고 제도도 갖추었네’는 임금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고 험할시고’는 자신을 탄핵한 반대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인 것이다.
- ⑤ ‘나인가 반기실가’는 자신의 충성심을 물라주는 임금에 대한 원망을 표출한 것이다.

46. ㉠과 ㉡의 ‘부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깨달음의 도구이다.
- ② ㉠과 ㉡는 갈등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 ③ ㉠과 ㉡는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④ ㉠은 행동 변화, ㉡는 인식 변화의 요인이다.
- ⑤ ㉠은 유유자적한 삶, ㉡는 애민의 삶을 드러낸다.

47. (다)를 쓰기 위해 글쓴이가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써야겠어.
- ② 대조적인 소재로 글을 전개해야겠어.
- ③ 미풍양속 소개로 글을 시작해야겠어.
- ④ 설의적 표현으로 의지를 강조해야겠어.
- ⑤ 예화를 들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겠어.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진의 시간은 셔터에 의해 결정된다. 사진의 공간 역시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 고정되기 때문에 셔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진의 공간은 프레임에 의해 결정된다.

프레임은 일견 사진을 둘러싼 울타리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사물과 사물 사이에 금을 그어 구분짓는 경계선으로나 보일 뿐이다. 더욱이 이 프레임은 이미 카메라의 파인더에 의해 사각형으로 정해져 있다. 사진가는 그 파인더로 내다보면서 자기가 찍고 싶은 만큼의 범위를 정해 셔터만 누르면 된다. 그것으로 사진의 테두리는 저절로 형성된다. 따라서 파인더로 내다보고 찍으면 그 네모난 파인더의 물리적 형태가 사진에 테두리로 남는 것, 이것이 곧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 프레임과 파인더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파인더의 네모꼴이 그대로 프레임의 네모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분명하지만, 파인더는 프레임을 정하기 위한 장치이지 프레임 자체는 아니다. 파인더가 유리창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은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일정 범위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유리창은 고정적이지만, 바라보는 세계는 작가의 시선에 따라 유동적이다. 파인더는 고정적이지만, 프레임은 작가의 움직이는 시선을 따라 유동한다. 프레임은 단순한 테두리가 아니라 작가가 본 세계의 테두리라는 점에서 파인더의 단순한 물리적 틀을 넘어선다.

관심을 가진 사물에 테두리를 씌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 사물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프레임에 둘러싸여 나타났다면, 그것은 적어도 작가가 어떤 의미를 제시하고자 했다는 뜻이 된다. 아무런 의미 없이 굳이 테두리를 씌워 보여줄 까닭이 없다. 헛짚는 수는 있을 것이다. 자기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테두리를 씌워 놓았지만 아무 뜻도 찾을 수 없는 때가 이런 경우인데, 그 역시 일단 의미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만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삼라만상은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물체들이다. 이러한 중성적 사물에 어떤 뜻을 부여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프레임 씌우기'이다. 곧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작가의 의식 작용이요, 의지 실현 작업인 것이다. 작가의 주관적 프레임을 통해 드러내는 행위, 그것이 프레임링(framing, 따내기)이다.

[A]

48. 글쓴이의 집필 계획 중, 위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제목 : 사진의 프레임
- 내용 전개
  1. 처음 : 사진 공간과 프레임의 관계를 말한다. .... ㉠
  2. 중간 : 파인더와 프레임의 차이점을 밝히고, 프레임의 의미를 설명한다. .... ㉡
  3. 끝 : 프레임링은 작가의 창조적 의미화임을 강조한다. ... ㉢
- 서술 방법
  1. 인과의 방법으로 중심 대상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 ㉣
  2. 비유의 방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프레임은 파인더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 ② 프레임은 고정적이고, 파인더는 유동적이다.
- ③ 파인더는 공간을 선택하는 과정이고, 프레임은 그 결과이다.
- ④ 파인더는 기계적인 틀이고, 프레임은 작가가 선택한 세계이다.
- ⑤ 프레임과 파인더는 그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50.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드문드문 세상을 끌어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푸르린 아낙네들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 본다.

- 김혜순, 「납작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이 시는 박수근 화백의 '세 여인'이란 그림을 보고 쓴 시이다. 문학과 다른 예술 장르가 어떻게 넘나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로, 같은 대상을 그림과 시로 표현할 때 작가에 의해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볼 수 있다.

- ① '세상을 끌어내어'는 사진가의 '프레임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시 작품은 화가의 그림을 시인이 다시 '프레임링'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③ 대상이 같으면 예술 장르가 다르더라도 작품의 의미가 같아 짐을 알 수 있겠군.
- ④ '납작하게 뻗어있다'는 것은 화가의 '의미화'인 동시에 시인의 '의미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는 시인의 프레임링이 독자에게 확장되는 효과가 있겠군.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